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20-12
(2020.09.02)

New START의 미래와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차례

핵심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New STAR(2011-2021)의 배경·요체·경과
Ⅲ. Post-New START 협상에 대한 미·러의 현재 입장
Ⅳ. Post-New START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만료를 앞둔 미·러 New START, 그리고 중국변수의 대두

❍ 2021년 2월 5일 만료를 앞둔 미·러'新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2010, 이하 New START)의 미래에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START-1(1991)과 New START(2010)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는 냉전기 양극질서하 최고점 대비 약 85%가 감축되는 성과를 거둠.

❍ 2020년 9월 현재, New START의 후속협상 부재로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시험받고 있음. 무엇보다도 1991년과 2010년 상정키 어렵던 "미중 패권경쟁" 요소가 새롭게 중요한 글로벌 전략안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음.

2 트럼프 정부의 후속 감축협상 소극성과 글로벌 전략안정성 시험

❍ 냉전기 미국·소련 주도 핵질서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지만, 현실주의 국제관계 프리즘속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제전략환경속 New START가 종료되는 2021.2.5. 이후 더 이상 START유형 러시아와의 군비통제 상호구속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규정상 5년 연장옵션이 주워졌고 트럼프 정부의 핵태세보고서(2018)나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장을 지지하지만, 향후 5개월 사이 상황 및 판단 변화에 따라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미·러 각각 독자적 전략군축 혹은 전략증강을 도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New START의 소멸은 이미 2002년 ABM조약(1972), 2019년 INF조약(1987)이 소멸된 만큼,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맺은 마지막 양자 전략무기통제조약의 소멸을 말함.

3 New START이후 미 · 러 전략관계와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 이에 본고는 New START 만료(2021.2.5.)후 미러간 START(1991, 2010) 형태의 새로운 포괄, 검증가능 전략공격기무감축 조약 탄생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3개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함: (i)New START 5년 연장 옵션 합의; (ii) 냉전기 미국·소련 전략무기통제의 영구적 소멸; (iii) SORT(미·러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 2002)형태의 느슨하고 단순한 핵탄두 감축조약임.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르는 현재와 미래 글로벌 전략안정성 방향을 적시해 보았음. 더불어 먼 미래 '중국'전략무기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우려속, 미·러·중 3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초의 '21세기형' 전략군비통제 협상과 조약도 상정해 보았음.

4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 불확실한 New START의 미래, 그리고 미·러·중이 그리는 경쟁적 글로벌 전략관계에 비추어. 우리의 외교·안보·국방관련 정책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해 보았음.

I. 문제의 제기

□ **2021년 2월 5일 만료를 앞둔** 미·러 '新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2010, 이하 New START)의 미래에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공식명: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 감축과 제한에 대한 조약,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for the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New START는 2009년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없는 세상' 비전과 '미·러관계 재설정(reset)' 기조에 부응, 탄생한 결과물로서, 2010년 4월 8일 프라하에서 양국 정상(오바마 & 메드베데프)이 서명했고, 이후 근 1년에 걸친 양국 의회 비준과정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발효됨. 규정에 따라 발효 10년만인 2021년 2월 5일 조약만료 예정.

□ New START는 미·러 각각 **전략핵탄두 배치(1550), 운반체 배치(700), 배치 및 비배치 발사대와 폭격기(800)** 상한선을 규정. 2020년 3월 1일 기준, **목표한도 감축과 제한 달성이 검증으로써 확인완료.**

□ **New START 만료 이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3개 대안이 가능: (i) 종료전 후속 감축 협상타결; (ii) 규정에 허용된 5년 연장 합의; (iii) New START의 자동소멸. 냉전기 미·소가 '상호확증공멸'(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입각한 전략안정성 유지를 위해 합의했으나, 새 안보환경속 각각 2002년과 2019년 역사속으로 사라진 ABM조약(탄도미사일방어제한조약,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1972-2002), INF조약(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1987-2019)에 이어 마지막 남은 냉전기 미·소 전략군비통제의 완전 소멸을 의미.

□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로 양국 모두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Post-New START 전략무기 추가감축에 대한 협상 부재.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New START 유형의 새로운 군축조약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음. 5년 연장 가능성은 반반임. 현재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초조하게 합의를 독촉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단순 연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후 트럼프 집권2기던 바이든 신정부던 종료직전 결정해도 무방함.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21년 New START를 끝으로 세계 제1, 제2의 핵무기보유국이 더 이상의 상호구속없

이 전략무기의 일방적 증강 혹은 감축을 '독자결정' 하게 되고 글로벌 전략 안정성 위험 가능성 다대.

□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새로운 국제전략 환경하 '중국' 이라는 제3의 행위자**를 구속하지 않는 미·러만의 전략핵무기 상호구속 레짐을 불완전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임. 따라서 미·러·중 3자 군비통제 대화를 제안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중국이 미·러만큼 전략무기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미·러·중 전략관계와 결부된 포스트-New START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전략불안정을 반영하는 동시, 이의 가속화 요인이 되고 있음. 냉전질서가 종식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그간 유지되어온 냉전기 핵구도, 즉, **미·러(소) 핵균형에 기반한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새로운 전략구도로 이동하는 전환기를 맞이한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임.

□ 본고의 구성은 (i) New START의 역사적 배경, 요체, 경과. (ii) 포스트-New START 대안에 대한 미·러의 현재 시점 인식과 입장, (iii) 2021.2.5. 이후 New START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와 이들 각각에 따른 예견되는 글로벌 전략안정성 정도. 마지막으로 (iv) 결론과 간단한 정책시사점임.

II. New START(2011-2021)의 탄생배경·요체·경과

1. New START의 역사적 배경

(1) 냉전기 "상호확증파괴" 에 입각한 미·소 적대적 전략안정성

1972.5.모스크바: (1) ABM(탄도미사일방어 제한조약)
(2) SALT-1 (전략무기제한협정)[1)]

○ **인류 최초 적대적 두 초강대국** 정상(닉슨 & 브레즈네프)이 전략군비통제 합의 (ABM조약' 과 'SALT-1' 체결).
○ 제2차 세계대전종식과 함께 냉전질서 도래. 미국(1945), 소련(1949) 차례로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면서 양극 체제하 핵군비 경쟁이 시작됨. 1969

1) 공식명: 미·소 전략공격무기제한 특정 조처에 관한 잠정합의.
원문: https://fas.org/nuke/control/salt1/text/salt1.htm

년, 두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억제력 균형을 이르렀다고 판단함. 핵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가운데 지속적 **'상호확증파괴'** 억제력을 보장받고자 협상에 들어갔던 것임.

<ABM 조약>: 전략방어 요격미사일 100기로 제한, 기지 1곳으로 제한
(2002.6. 미국탈퇴)

<SALT-1> **(4쪽 분량)**
- **ICBM과 SLBM 동결** * 전략폭격기와 핵탄두 열외
(i) 신규 ICBM 실로 금지 (미국 1054; 러시아 1607 동결)
기존 ICBM실로 "대폭" 확장 금지
(ii) SLBM 발사튜브 제한 (미국 656; 러시아 740)
SLBM탑재 잠수함 제한
- 한도내 현대화 및 대체 가능
- 검증 (국가기술방식)
- 조약효력: 5년.

❍ 1970년대 SALT-1이후 추가 미사일 제한협상(SALT-II: 총 미사일한도 2400)이 타결됐으나 데탕트 붕괴로 비준불가.

1991.7.모스크바: START-1 (전략공격무기감축과 제한에 대한 조약)[2)]

❍ **미·소 최초의 "핵" 군축 합의**. 소련붕괴 5개월전, 1991년 7월 양국 정상(조지 H.W. 부시 대통령 & 고르바초프 대통령) 서명.
❍ 합의요체 (**200쪽 이상**: 원문, 부속서, 프로토콜, 양해각서 등)
(i) 배치상한선: 전략 핵탄두 (6000) & 운반체(ICBM, SLBM, 전략폭격기) (1600), 잉여운반체 해체; (ii) 상호 현장조사, 주기적 정보교환, 위성사용 등을 통한 검증.
❍ 소련붕괴로 5개국으로 확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미국). 이를 리스본 프로토콜(1992.5.23.)에서 합의. 5개국 비준으로 1994년 실효에 들어감. 발효 7년만인 2001.12.감축목표 달성.
❍ 만료: 발효후 15년 (2009.12.5.)

2) 원문: https://fas.org/nuke/control/start1/text/treatytc.htm#TREATYTOC

<표-1> START-1 감축 (중간목표 달성일: 2001.12.5.) **(*중간목표 달성일에 전체목표 달성)**

<유형>	<한도>
배치 ICBM, SLBM, 중폭격기	1600
배치 핵탄두 (운반체 장전)	6000

(2) 소련붕괴로 인한 미·러 전략관계 불안정화

○ 소련붕괴로 국제 전략환경에 변화가 초래됨: (i) 1991년말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에 이어 새로 나타난 민주러시아는 소련처럼 적대적 대미관계를 전제하기가 어려움. (ii) 냉전종식이후 새로운 국제안보위협의 등장임: 대표저으로 북한, 이란 핵확산 위협 및 이들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가능성, 그리고 2001.9.11.테러 이후, 극단이슬람 테러단체들의 공격 잠재력임.

2002.6. ABM조약의 소멸: 미사일방어 제한 소멸

냉전종식이후 새 국제전략환경하 미·소 전략안정성의 한 축 상실

○ 미국이 북한, 이란핵확산 및 미사일 공격 잠재위협속 통합미사일방어 계획 확정. 이에 따라 냉전기 미사일방어 제한을 통해 전략안정성을 유지해 오는 두 축 중 하나였던 ABM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 러시아는 이에 대해 자국의 대미 전략억제력 상실을 우려, 반대했으나 조약상 일방의 국가안보 고려속 탈퇴가 가능한 만큼. 미국은 ABM조약 규정에 따라 6개월전(2001.12) 러시아에 탈퇴결정을 통보하고 탈퇴(2002.6). 이후 미러는 미사일방어 구속 해제.

2002.5.모스크바:
SORT(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간이적 성격, "핵탄두"만의 추가감축 합의 (1쪽)

○ 미측은 독자적 감축결정을 선호한 반면, 재정적 어려움속 미러 핵무기 감축 균형과 예측성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측은 성문화된 추가 감축 조약을 촉구.

○ W. 부시 대통령은 2001.12. 대러 ABM탈퇴를 통고하고, 이듬해 2002.5.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핵탄두" 만의 추가감축** 조약인 SORT에 서명. 2001.12 이미 START-1 목표가 달성된 만큼, 추가로 핵탄두를 감축키로 함.

○ 합의요체: 1쪽 분량. 상한선: 오직 핵탄두 1700-2200 (배치, 비배치 지정 없음). 검증과 사찰 결여(START-1에 준할 것이라 함). 조약만료일은 2012.12.31.

<표-2> SORT 감축 (목표일: 조약종료일, 2012.12.31)

<유형>	<한도>
핵탄두	1700-2200 (기존 6000)

(3) 오바마 대통령의 미러관계 리셋기조 & 핵무기없는 세상 비전

○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출범(2009)부터 미러관계 리셋, 그리고 핵무기없는 세상 비전을 강조. 공식만료 (2009.12)를 앞둔 START-1 "후속조약" 협상을 개시키로 함. 그 결과 2010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냉전종식이후 처음으로 의미있는"** 감축조약 (New START)에 서명.

2010.4.프라하: START-1의 '후속조약'으로서의 New START 탄생

○ 오바마 대통령은 New START 타결 직후 "20세기 유산을 뒤로하고 후손들에게 좀더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라 자평. "강력하고 효과적인 검증레짐"도 강조. 이로써 검증레짐이 부재하고 핵만을 감축무기로 정했던 **간이적 성격의 SORT를 대체**키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의 '단계별, 점진적 유럽미사일방어 계획' (2011년-2020년)은 New START의 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남.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유럽미사일방어계획은 러시아가 한동안 주저했던 요소였음.

○ 미국내 보수론자들은 New START 비준에 반대:(i) 이란, 북한처럼 NPT위배 국가들이 나타난 이상 핵군축 추진은 경솔하고 위험. (ii) 영국, 프랑스, 중국 등 NPT 체제하 핵보유국들의 동참 부재. (iii) 미러 양국간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 (2008), 러시아 정치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 존재. 이를 잘 풀지 못하는 경우 전략핵감축에 대한 환경적 제약 (iv) 전술핵무기 부문 러시아의 10:1 승산 방치 (v)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전략 양보로 미국 방위력 약화 등. 그러나 미 국방부는 '2012 국방수권법 1240에 따른 러시아 전략핵전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록 러시아가 속이고 이탈핵전력으로 전격적 불시공격을 가해도, 미국 핵보복력에 대해 미미하거나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3)]

○ 러시아는 소련의 법적 승계국으로 비록 경제, 정치력은 약화됐지만 핵초

강대국임을 다시 실감하는 계기가 됨. 다만, 비준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됨.

○ 비준: 서명 10개월후 (2011.2.5.) 뮌헨안보회의에서 양국 외무장관(라브로프 & 클린턴의)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 같은 날 SORT는 자동종료.

2. New START의 요체

○ 조약과 프로토콜 포함 총 194쪽 분량: (i) 서문과 16개조로 구성된 본문 (약 22쪽), (ii) 조약 프로토콜 (정의, 검증절차, 데이터카테고리, 통지, 사찰활동, 양자협의위원회, 텔레메트릭 정보. 합의성명 등) (약 91쪽). (iii) 프로토콜 부속문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 조치) (약 78쪽), (iv) 미러 일방 성명서 3건 (3쪽)으로 구성.[4)]

○ 상한선 설정

◈ 700: 핵장전 가능 **ICBM, SLBM, 중폭격기 배치**

◈ 1550: 위에 **장전된 전략핵탄두**. (중폭격기는 1개 탄두로 산정)

◈ 800: 배치, 비배치 막론 핵장전용 **ICBM발사대, SLBM발사대, 중폭격기**

<표-3> New START 감축 (중간목표일: 2018.2.5.)

<유형>	<한도>
배치 미사일 & 중폭격기	700 (START-1, 1600)
배치 핵탄두	1550 (START-1, 6000) (74%) (SORT, 1700-2200) (30%)
배치 & 비배치 발사대 & 폭격기	800 (START-1, 1600)

○ 검증과 투명성

1991 START-1을 기초로 한 업데이트 검증레짐 구축.

◈ 단기통보 현지사찰(연 18회)과 공개: (i) 배치 핵탄두, 배치 및 비배치 운반체 대상 10회 허용 (제1유형 사찰); (ii) 비배치 운반체만의 저장고 8회 허용 (제2유형 사찰).

◈ 기타: 데이터 교환과 통지, 위성 등 국가기술기제(NTM), 특정 ICBM, SLBM발사대 텔레메트리 연례 교환

○ 비구속

◈ 전략전력 구조 및 현대화

◈ 기존 혹은 미래 미국 미사일방어 실험, 개발, 배치

◈ 장거리 재래식공격 능력

---

3) Report on the Strategic Nuclear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ursuant to Section 1240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https://fas.org/programs/ssp/nukes/nuclearweapons/DOD2012_RussianNukes.pdf

4) 조약원문, https://www.congress.gov/111/cdoc/tdoc5/CDOC-111tdoc5.pdf.

❍ 조약만료: **발효후 10년 (단, “5년 연장 옵션”)**

<표-4> 다수의 기한 (deadline)[5)]

조약발효 후 일자 (이내)	
5이내	사찰관 수송기 정보교환
25이내	사찰관, 승무원 명잔교환
45이내	무기 데이터베이스 교환 (수효, 위치, 기술특성)
60이내	신고 무기중 미공개 무기 공개 (예: 미국 B-2A 폭격기, 러시아 RS-24 ICBM)
60 부터 사찰권 개시	연간 18회 신고 핵탄두 & 운반체 내역 현지사찰 (최소 32시간전 통고) (i) 10회 <Type-1> 배치 & 비배치 (ii) 8회 <Type-2> 비배치 (전환 & 제거 확인 포함)
120 부터	Davis-Monthan, AZ 공군기지내 중폭격기 공개
180 부터 원격정보기록 개시	미사일 발진·비행
225 부터	갱신 데이터베이스 교환, 이후 매6개월 주기.
1년 부터	비핵무기 전용 공개
3년 부터	이전 전환된 미사일 발사대 공개
7년 부터 조약한도 중간 달성	핵탄두(1550), 운반체(700), 발사대(800)
10년 부터 조약 효력 상실	조약 소멸 (양측의 5년 연장합의 옵션)

<자료> 미 국무부 (https://2009-2017.state.gov/r/pa/prs/ps/2011/02/156037.htm)

3. New START 경과: 2020.3 현재 감축목표 달성

❍ 발효후 7년 경과시점 (2018.2.5.) 중간 목표달성을 의무화함. 미러는 당일 이를 준수했음을 선언했으며, 2020.3.1. 기준, 양국 모두 조약의 감축목표 달성을 검증으로써 확인함.

<표-5> New Treaty 전략공격무기 규모 (2020.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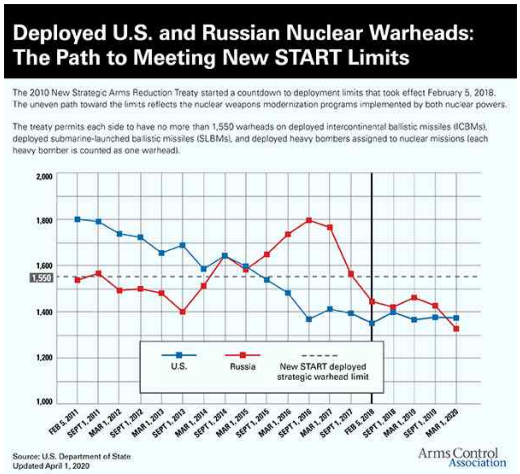
< >: New START 목표 수효; ( ): New START발효전 수효

	배치 전달체 (ICBM, SLBM, 중폭격기)	배치 탄두 (배치 전달체에 장착)	배치 &비배치 (발사대, 중폭격기)
러시아	485 <700> (809)	1326 <1550> (3897)	754 <800> (3289)
미국	655 <700> (1188)	1372 <1550> (5916)	800 <800> (4864)

<자료> 미 국무부, New START Treaty Aggregate Numbers of Strategic Offensive Arms (2020.3.1.); START-1 MOU (2009.7.1.)

5) 미 국무부 (http://2009-2017.state.gov/r/pa/prs/ps/2011/02/156037.htm)

<그림-1> New START하 미러 핵탄두감축 (2011.2.1.-2020.3.1.)



<자료> 미국무부, 2020.4.1., Arms Control Association 재인용.

○ 감축검증을 위한 현지사찰 활동도 규정대로 수행되었음.

<표-6> New START 현지사찰활동

	미국	러시아	합계
1년차	18	18	36
2년차	18	18	36
3년차	18	18	36
4년차	18	18	36
5년차	18	18	36
6년차	18	18	36
7년차	18	18	36
8년차	18	18	36
9년차	18	18	36
10년차 (2020.2.5.-2021.2.4.) (2020.8 기준)	2	2	4
합계	164	164	328

<자료> 미 국무부, New START Treaty Inspection Activities (2020.8.20.)

III. Post-New START 협상에 대한 미·러의 현재 입장

○ 2020년 6월과 7월, 각 1회 비엔나에서 New START이후를 주제로한 미러 대표단 회의 개최. 러시아가 후속협상 내지 연장옵션에 적극적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음.

1.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포스트-New START 후속협상에 대한 소극성

(1) New START 자체에 대한 회의론

○ 2017.2.9. 신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New START 후속협상에 대한 질문에 접해, New START가 오바마 정부가 협상한 나쁜 협상들 중 하나라 비판함. 또한 2010년 New START에 반대했던 보수 인사들의 논거가 최근 공화당내 재등장하고 있음(“북한, 이란 등 핵 잠재력,” “여타 핵국가들의 감축조율 부재,” “러시아에 유리,” “러시아가 유리한 전술핵무기 다루지 않았다” 등).

(2) 트럼프 정부 핵테세보고서(2018)의 핵위협 인식 증대

○ 핵태세보고서(2018)은 트럼프 정부의 핵정책을 밝힌 첫 문건임. 이에 비추어 보면, New START 후속협상, 나아가 5년 연장옵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이유가 취약.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 핵태세보고서(2010)의 연속선상에서 핵무기국가들의 존재, 비확산 우려 등 핵억제력의 필요성, 동맹에 대한 억제력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다른한편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극단 극단테러리즘으로부터 오는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환경을 더욱 강조. 2010년 ‘핵무기없는 세상’을 비전으로 했던 오바마 정부의 접근방식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조건이 변했다”는 입장**을 취함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보고서 작성 즈음은 핵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지금보다 덜 치명적이었고, 강대국 관계도 지금보다 우호적”)

○ 미국이 냉전종식후 자국 핵무기 85%이상을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금하는 사이 잠재적 적대세력들로부터 점점 더 노골적인 핵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임. 특히 두 강대국, 즉, **러시아와 중국의 신종 핵보유 역량개발 및 국가전략상 핵의 가시성 제고**. 미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한 비대칭 대응 시도. 동시에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도 더 공격적인 행동 시도. **러시아는 INF조약(1987) 비준수** 등 미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에 상응치 않음.

○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국제비확산 차원에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오는 위협적 환경, 비정부단체의 폭력적 테러 등 유례없이 다양한 위협까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 불확실성과 위험 고조. 4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각각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필요성 제기.

○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기존 핵탄두 생명연장프로그램 지

지는 물론, 2029년부터 ICBM 교체 및 현대화, 전략미사일잠수함 신형 교체, 차세대 폭격기 개발 및 2020년대 중반이후 교체, 핵지휘, 통제, 교신체계 현대화 등을 계획. 또한 우주자산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도모. 또한 기존 SLBM탄두 소량을 개량한 저강도 핵무기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개발계획(SLCM은 2010 핵태세보고서에서 퇴출결정했던 것).

○ 미국 핵정책과 핵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i) 잠재 적대세력들의 핵공격, 비핵공격 억제; 그 다음 (ii) 동맹과 우방에 대한 확장억제력; (iii) 억제실패시 국가목적 달성, (iv) 불확실한 미래 준비.

(2) 중국 전략무기 증강 우려

○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에 비해 **전략환경이 변했다**고 보는 최대 요인 중 하나가 2010년대 이후 소위 **미중 패권시대**를 맞아, 글로벌 전략안정성에 간과할 수 없는 "**중국 변수**" 임.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내 미국 이익에 대한 주요 도전세력이며, 러시아와 함께 전후 형성된 국제질서 및 행동규범 변화를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확정. 중국의 육·해·공 핵3원체계 개발 등 핵전력 증강 및 방어망 개발예의 주시. 미·러·중 3자 전략군비통제 기하려 함.

○ 중국은 핵전력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음. 전술핵무기 보유 여부도 알 수 없음.

◈ 선언적으로는 'No Fist Use' 및 '미니멈 핵능력 유지' 선언 ("국가안보 유지 & 1차 공격 억제 목적")

◈ 최근 핵탄두 꾸준한 증가: 약 320개 (SIPRI 추정) (2011: 240개).

◈ 운반체계 현대화 및 확장 (일부 미사일 고체연료 전환 결정, 사거리 & 파괴력 증강): 이동성, 정밀성 강화로 미국의 제한적 탄도미사일방어 압도 목적, 지도부는 이것이 강대국 지위 달성, 국익, 주권에 긴요하다는 인식.

△지상발사미사일 (PLA로켓군 관할)

소수 2차 가격용 핵무장ICBM 보유 추정; 163기 핵탑재가능 지상발사미사일(이중 40-50기 미국 본토 가격 가능 ICBM). 2017년 1월, 처음으로 DF-41 (3단계, 고체연료, 12,000-15,000 km, 10개 탄두)출현.

△잠수함과 SLBM

Jin급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 4대. 각각 2대의 첨단 SLBM (JL-2: 사거리 7,000km이상) 장착가능. 추가로 Jin급 잠수함 4대 진수예정. 중국 잠수함의 억제목적 초계활동 여부 불명확.

△전략폭격기

20대 핵능력폭격기(H-6: 소련설계, 3000km) 현대화 개시. 2012년 공군에 '전략억제' 임무 부여, H-6K 개발 (거리확장 & 공대지 순항미사일 6기 장착 가능). 2017년 제5세대 쳉두 J-20 스텔스 전투기 실용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공권에 도전.

○ 미국이 2020년 6월 미·러 전략안정성에 관한 비엔나 회의에 중국을 초대했으나, 중국은 자국 전략무기 규모가 미·러만큼 다대하지 않다며 거절.

2. 러시아의 입장: New START 후속협상 내지 연장(2021-2026)촉구

○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후속 감축협상 촉구. 그러나 오히려 미측의 INF레짐 탈퇴통고 등 시간이 가면서 후속감축 협상 가능성 낮아짐. 이에 푸틴대통령은 2019년 New START의 **"조건없는" 연장 (규정에 따라 5년)**을 정책목표로 제시.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서조차 아직 (2020.8 현재)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임.

(1) 미·러 후속 전략무기감축협상을 해야 하는 러측의 이유

○ 첫째, 소련의 승계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여전히 핵억지력을 보유한 핵초강국 명예화 상징적 위상을 보존코자 함. New START는 미국과 대등한 억제력을 가졌던 냉전기 마지막 전략무기 조약임. 미사일방어도 (ABM 2002, 새 국제안보환경으로 미국탈퇴), 중거리핵전력도 (INF 2019, 러시아의 비준수로 미국의 탈퇴) 사라진 현 상황에서 전략공격무기에 대해서도 상호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함.

○ 둘째, 경제력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상호확증공멸' (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장담하기 어려움. 국제유가 하락추세, 미국의 셰일에너지 개발생산, 그리고 2014년 크림합병 이후 지속되어온 서방 (미국·EU)의 제재, 시리아 참전 등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 자국의 일방적이 아닌 미국과 "같이" 의무적으로 전략무기를 감축해야 하는 큰 이유임.

○ 셋째, 정치적으로 미러 협상 환경이 단기간 나아질 것 같지 않음. 미러관계가 2014년 크림합병이후 전방위적으로 급하강하고 있음. 관계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더욱 성문조약에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함.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도 문제이지만 2020.11. 미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더 원치 않음. 미러관계 리셋으로 New START 협상 성공에 기여했던 오바마 민주당 정부와 냉전이후 최악의 양자 불신관계에 진입했었기 때문임. (2012

마그니츠키 변호사 옥중사망, 2014 우크라이나, 2015 시리아 개입, 2016 미 대선개입 및 사이버 침투, 지속적 INF 비준수 활동 등)

(2)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대미 적극 공세

○ 2019년부터 러시아는 부쩍 NPT 제6조(“핵무기 경쟁종식 및 궁극적 핵무기소멸을 위한 진지한 노력”)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INF 레짐 탈퇴(2019)내지 New START 후속협상 소극성을 비난하고 있음. 2020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1945.8.6.) 75주년을 맞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New START의 연장을 촉구 (*Interfax*, 2020.8.6.)

“WMD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NPT하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 맥락에서 New START 연장을 촉구한다.” “러시아는 핵위협 감축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지지한다... 대상 이슈들에는 미국의 글로벌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핵 첨단정밀(high-precision)전략공격무기 개발, 우주 및 사이버공간 무기화, 미국의 CTBT (포괄핵실험금지조약, 1996) 미비준 등이 있다.”

IV. Post-New START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 New START 효력만료(2021.2.5.) 이후, 미러 전략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변수는 수용이 될 것인가. 장차 미·러·중의 전략관계는 어떻게 글로벌 전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New START 만료시점(2021.2.5.) 이를 잇는 후속조약 부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 개의 전망시나리오를 제시함.
○ 새 국제전략환경속 장기적으로 미러중 3자 전략무기통제협상을 상정해 보았음.

1. 단기적으로 START 유형 후속감축조약 가능성 높지 않음 (전략핵탄두 & 육해공 3원 운반체에 대한 추가 감축 및 검증레짐)

○ 이의 논거는 (i) **시기적으로** 향후 4개월간내 START 유형 추가감축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움. (New START의 경우 1년여, 양측간 감축범위, 계측원칙, 검증 방안 등에 대해 이견 수렴. 이 기간중 양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간 수차례 회담 수반). (ii)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시부터 New START를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나쁜 협상**중 하나라고 비판해 왔고, 취임 이후 현재까지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호감에도 불구하고, 군축부문에서만은 러시아의 INF비준수에 따른 탈퇴결정 등, 대러 불신 고조. 현재까

지 New START 후속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음. 트럼프 정부 핵태세보고서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국가안보관, 국가방위관 속, 러시아 포함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한 공세적 모습.

○ 다만, 보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 제1,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i) 러시아의 감축협상 압박과 NPT 제6조 외교, 미 민주당 의원들, 군비통제론자들로부터의 압력. NPT비핵국가들의 시선 (ii)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시점,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을 파멸할 수 있는 핵위력을 가진 지구상 단하나의 국가라는 점에서 전략합리성 차원에서 미러 공동결정의 필요성에 착안해야 하는 계기가 올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2. 후속조약 부재에 따른 세 개의 전망 시나리오

○ 다음은 가능성 순으로 2021.2.5. 직후 New START의 운명을 세 개의 전망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각각 글로벌 전략안정성을 가늠.

제1 시나리오: '5년 연장' 옵션 (New START 2026.2.5.까지 유효, 전략무기 한도 동결)

○ 2020.9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측의 조약이 규정한 5년연장 옵션 촉구에 대해서조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연장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음. 시간을 끌다가 조약만료를 앞둔 2021.2.5.에 임박하여, 5년 연장옵션 (2026.2.5.까지 효력연장)에 합의하는 것임. 중국의 전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려속, 새로운 미러 전략관계와 새로운 글로벌 전략안정성 판단을 5년 후로 연기하는 것임.

○ 그 논거는 (i)연장협상은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 2021.2.5. **임박해서도 합의가능**; (ii) 러시아측이 트럼프 정부의 후속협상 의지 결여를 인지하고, 2019년부터 "무조건적" 5년 연장옵션 합의를 강력 촉구하고 있음. 미측은 이를 간과하는 데서 오는 전략적 위험을 상정치 않을 수 없음. 적어도 상당기간 러시아는 유일하게 미국과 **'상호공멸확증' 핵억지력**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임; (iii) **NPT 제6조 의무**(효과적 핵군축을 위한 군축협상)를 기반으로 한 미 국내외 군축론자, 군비통제론자들의 로비와 공세, 민주당 의원들의 군축지지 청원, NPT 50주년(2020) 비핵국가들의 곱지않은 시선 등을 종합 고려 (iv)심지어 **2018 트럼프 정부 핵태세보고서**도 New START 후속은 말하지 않았지만 연장 가능성은 제시; (v) 민주당의

대러 불신은 오바마 집권2기에 이어 매우 고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의 정강을 보면 New START 연장 지지.

○ 2021.2.5.이후 5년 동안, 미러는 New START가 정한 전략무기 배치 상한선을 지키는 동시 전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이는 더욱 확고할 것임. 특히 미국은 중국의 전략무기 추이를 집중, 감시하고 중러간 투명, 불투명 전략무기 협력을 억제하는 데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보임.

○ 5년후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미러는 다시 한번 양국 전략관계와 글로벌 안정성에 대한 결정의 기로에 섬. 그때 쌍방은 변화된 전략환경을 고려, START유형(전략핵탄두 & 육해공 3원 운반체에 대한 추가 감축 및 검증레짐)의 Newer START, 혹은 SORT(2002) 형태의 간이적 핵탄두 만의 감축, 혹은 조약으로부터의 쌍방 영구탈퇴를 결정할 것임. 미·러·중 3자 전략관계 대화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대두될 수도 있음.

제2 시나리오: New START 자동소멸 (냉전기 미국·소련 전략무기통제체계 마지막 조약 상실)

○ 후속협상 합의뿐 아니라 '5년 연장' 합의도 어려워 조약규정에 따라 발효후 10년만인 2021.2.5. 자동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향후 5개월 사이 미러관계 악화요인, 미중관계 악화요인이 추가 발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그럴 가능성 없지 않음. 미측이 중국의 전략무기통제가 불가능한 가운데 러시아와 구속력있는 핵군비통제를 꺼리는 것임. New START 5년 연장 합의를 통한 동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설 수 있음.

○ 2021년 New START 소멸은 2002년 국가미사일방어를 제한한 ABM조약(1972)의 소멸, 2019년 중단거리(500-5500km) 지상발사 탄도 및 순항미사일 금지를 목표한 INF조약(1987)의 소멸에 이어 냉전기 미국과 소련, 두 적대적 초강대국 경쟁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탄생했던 전략군비통제의 총체적 종결을 의미함. 이후는 미·러 독자적 정책결정으로 남게 됨.

○ 더욱이 미중패권이라는 새로운 전략환경하 미·러·중 3자 전략경쟁이 예견되고, 한동안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위험에 처함.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전력과 핵전략 투명성이 저하되고 핵군비 경쟁 도래 (핵탄두 증강 및 현대화, ICBM, SLBM과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운반체 현대화, 미사일 방어 증강). 뿐만아니라 미·러·중 첨단정밀 비핵 재래식 무기 경쟁가속화. 극초음속, 스텔스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경쟁, 우주와 사이버 공간

무기화 경쟁 병행. 미·소 정상의 비구속 공동선언(1991.9)에 따라 철수, 폐기해온 미러의 전술핵무기, 중국의 비공개 전술핵무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

이 시나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음 둘 중 하나의 결과가 이어 질 수 있음: 첫째 가능성은 각각 전략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처럼, 미·러 (양자), 혹은 미·중·러(3자)가 핵군비통제가 이득이라는 합리적 계산하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 둘째 가능성은 (ii) 무정부 상태 (anarchy) 전략경쟁의 결과로서 확고한 단일 초핵강대국이 등장, 새로운 핵질서가 구축 및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임.

제3 시나리오: SORT(2002)유형 느슨한 '핵탄두감축조약'

-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면 배제할 수 없음.
- 2020.11. 대선후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적극 감축동기와 압박, NPT 제6조 외교,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군비통제론자들의 로비, NPT비핵국가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핵탄두' 만을 대상으로 한 감축조약 체결.
- 시간이 가면서 미러관계 악화 등 전략환경 변화시 쉽게 일방의 탈퇴, 혹은 합의하 소멸 가능성 있음(SORT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 New START로 대체됨).

3. 먼 미래 비전: '미·러·중' 전략군비통제 협상 혹은 조약

- 시기적으로나, 중국의 거부로나 2021년 2월 New START종료 직후는 불가능함.
- 현재 중국은 자국 전략무기가 미·러에 비해 미미하다며 New START 연장 옵션을 권고하면서 미국의 초청에 불응.
-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초청이 New START 연장을 회피하려는 의도라 비난. 중국 참여 자체에 대한 러시아측의 일관적 선호도는 현재까지 부재. 때때로 고위관리들이 다자, 비핵무기 논의의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정도임.
- 아주 장기적으로는 3자 전력군비통제 협상 혹은 조약이 전혀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음. 그 경우: (i) 단계적일 것임; (ii) 핵과 더불어 비핵전력도 포함될 수 있음. 일종의 "21세기 군비통제모델" ; (iii) 3국 이상의 국가들이 포함될 수도 있음; (iv) 2020.11. 미 대선결과, 포스트-코로나19 3국내 리더십 위상, 경제복원력, 군사력 등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임.

○ 트럼프 정부의 2019년 미러 INF조약 탈퇴결정을 불러온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비준수 행위라는 국제법적 요소였지만, 내심 중국의 중거리핵전력 불구속 상태에 대한 안보불안과 불공정 의식이 있었음에 비추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전략안정성 차원에서 중국변수 통제를 계획할 것으로 보임.[6)]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START-1(1991)과 New START(2010)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는 냉전기 양극질서하 최고점 대비 약 85%가 감축되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2020년 현재, New START의 후속협상 부재로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시험받고 있음.

○ 본고는 START만료(2021.2.25.) 직후, 미러간 START(1991, 2010) 형태의 포괄, 검증가능한 전략공격기무감축 조약 탄생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3개 대안 시나리오로서 (i)New START 5년 연장 옵션 합의; (ii) 냉전기 미국·소련 전략무기통제의 영구적 소멸; (iii) SORT(2002)형태의 느슨하고 단순한 “핵탄두” 만의 감축조약을 설정. 각각 현재와 미래 글로벌 전략안정성 방향을 적시해 보았음. 더불어 2021년은 아니겠으나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 전략무기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우려속, 미·러·중 3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초의 ‘21세기형’ 전략군비통제 협상과 조약도 생각해 보았음.

○ 향후 핵질서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전략안정성은 다음 러시아, 미국, 중국 국내 및 강대국 경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칠 것임. 첫째,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혹은 바이든 누가 당선되던 미러관계 리셋이 수월치 않을 것이고, 대러 양보는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다자주의 외교속 세계 핵무기 (13,400)의 90%를 보유한 미러에 대해 국내외 군비통제론자들과 NPT비핵국가들의 핵감축 요청과 로비가 계속될 것임. 두 요소간의 접점에서 대러 협상유무, 협상이라면 어떤 협상, 어떤 결과인가가 정해질 것임. 둘째, 현실주의 국제관계속 “러시아”가 유일하게 미국과 상호공멸의 핵능력을 보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 군사력이 냉전기 미·소 평형구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 등 타격을 심하게 안고 있는 점. 미 공화,

6) INF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은 적어도 양국의 “사거리 500-5,500km(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관한 한, 제로옵션을 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각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하 체결. 정은숙,「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세종정책브리핑 2019-3) 참조.

민주 양당 모두와의 관계가 푸틴집권 3기(2012)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할 것임. 셋째, 새롭게 미중패권이 첨예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전략 증강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기존 미·러 양자 START틀을 대체 혹은 병행하는 3자 구도를 필요로 함.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전략무기 규모가 대등하지 않다며 거부입장이고, 내심 중국을 견제하지만 당장의 위협으로 보지 않는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핑계를 댄다는 외에 어떤 별도의 일관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우리로서는 1990년대 이후 START-1과 New START가 결과한 미·러의 전략무기감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미·러·중 강대국 전략관계가 편치 않음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여러 시나리오 중 특히 2021.2.5. 조약이 영구소멸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안보·국방 정책 방향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음.이 경우 **미중패권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환경하 미·러·중 3자 전략경쟁이 예견되고, 한동안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위험에 처하게 됨.** 훗날 시간이 흐르면 무정부 상태(anarchy) 전략경쟁의 끝에서 확고한 단일 초핵강대국이 등장, 새로운 핵질서가 구축,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미·러 (양자), 혹은 미·중·러(3자)가 핵군비통제가 이득이라는 합리적 계산하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임. 지금은 예견하기 어려움. 어느 경우에도 우리정부의 동맹국외교와 대러, 대중외교는 2020년대 글러벌 전략환경이 더 이상 미러 New START(2010) 협상을 가능케 했던 10년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첫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러관계 리셋기조를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고, 둘째, 그때만 해도 ‘중국’ 전략변수가 글로벌 전략안정성 차원에서 지금처럼 중요히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임.

○ 끝으로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2018년부터 NPT의 장에서 ‘핵군축 환경조성’(CEND)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트럼프 정부 핵태세보고서(2018)와 맥을 같이하면서, 핵군축을 용이하게 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요지임. 달리 말해 핵무기국가들(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NPT 제6조(핵군축을 위한 협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안전한 안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지금과 같이 중국, 러시아의 수정주의 행태와 핵전력 강화, 북한, 이란 등의 비확산 비준수내지 불확실성 등 안전한 안보환경에의 역행요소가 존재하는 한, 오히려 군축이 글로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전세계적으로 42여개국이 이 취지를 이해하고 대화에 동참하

고 있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담보를 받는 한국이 이에 참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문헌

정은숙 (2002).「미·러 전략관계: ABM레짐의 성립과 붕괴를 중심으로」. 중장기정책연구. 세종연구소.

정은숙 (2009).“미러 핵군축 합의: 의미와 전망.”「정세와 정책」. 8월.

정은숙 (2016).「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핵무기: 배경, 전망, 시사점」.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정은숙 (2018).“트럼프정부의 핵태세보고서: 현실주의 프리즘.”「정세와 정책」3월.

정은숙 (2019).「INF 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세종정책브리핑 3.

정은숙 (2020).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의 국제안보 쟁점과 함의: 서방위축과 중국위협. "[정세와 정책]. 4월

US Department of State, *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 (April 15, 2020)

US Department of State, *Annual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New START Treaty - 2020* (January 30, 2020).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July 31, 1991)
(https://fas.org/nuke/control/start1/text/treatytc.htm#TREATYTOC)

The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May 24, 2002)
(https://fas.org/nuke/control/sort/sort.htm)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for the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April 8, 2010)
(https://www.congress.gov/111/cdoc/tdoc5/CDOC-111tdoc5.pdf)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